

말없이

30여년간 한국 마임 대중화 · 세계화에 앞장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는 '2005 마임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다. 순수예술(공연)과 축제(난장)의 복합적 형태를 가진 이 행사는 프랑스 미모스, 영국 런던 마임축제와 더불어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마임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춘천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마임도시로 급부상시키는 데 남다른 열정을 불사른 이가 있다. '마임은 곧 마음이다'를 부르짖고 마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54·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씨. 30여년 이상을 마임에 공들인 그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한국문화계에서 유진규가 마임이고, 마임이 곧 유진규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마임'. 그건 대체 무엇일까? '마임은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 사물, 자연현상, 우주의 이치 등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마임이죠.' 마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시 이어졌다. '불교에 왜 이런 말이 있죠. '꽃은 말없이 피었다. 말없이 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말처럼 모든 움직임은 그 속에 담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임은 바로 그 움직임만으

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술이지요.' 유씨가 처음부터 마임리스트를 꿈꾼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동물을 좋아해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1970년 건국대 수의학과에 입학했지만 엄격한 학과 내부규율에 질려 공부에 관심을 잃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학교 연극반이었다. 그때부터 연극에 정진없이 빠져들어 급기야 학교에서 제적까지 당한 유씨는 1972년, 당시 전위적 실험 작품들로 유명한 극단 '에저포'에 입단한다. 여기서 신체적인 표현을 중시한 극단의 특성 때문에 유씨는 자연스럽게 마임과 친해질 수 있었다. 특히 마임이라면 철저 채플린 흉내가 전부였던 시절, 세계적인 마임리스트 로프 사레의 제자를 통해 본격적인 마임 수업을 받았다. 1976년 '별거벗은 광대'로 마임 인생의 첫발을 내디딘 그의 마임 인생에서 고비가 찾아왔다. 그토록 경멸했던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분노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공황상태가 찾아왔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선 것일까? 이것 역시 한낱 포장하고 꾸민 작위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은가' 등등. 이런 생각이 들자 1981년 보따리를 꾸려 객지인 춘천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한 동안 소를 키우며 살았다. 그러던 중 공연

한국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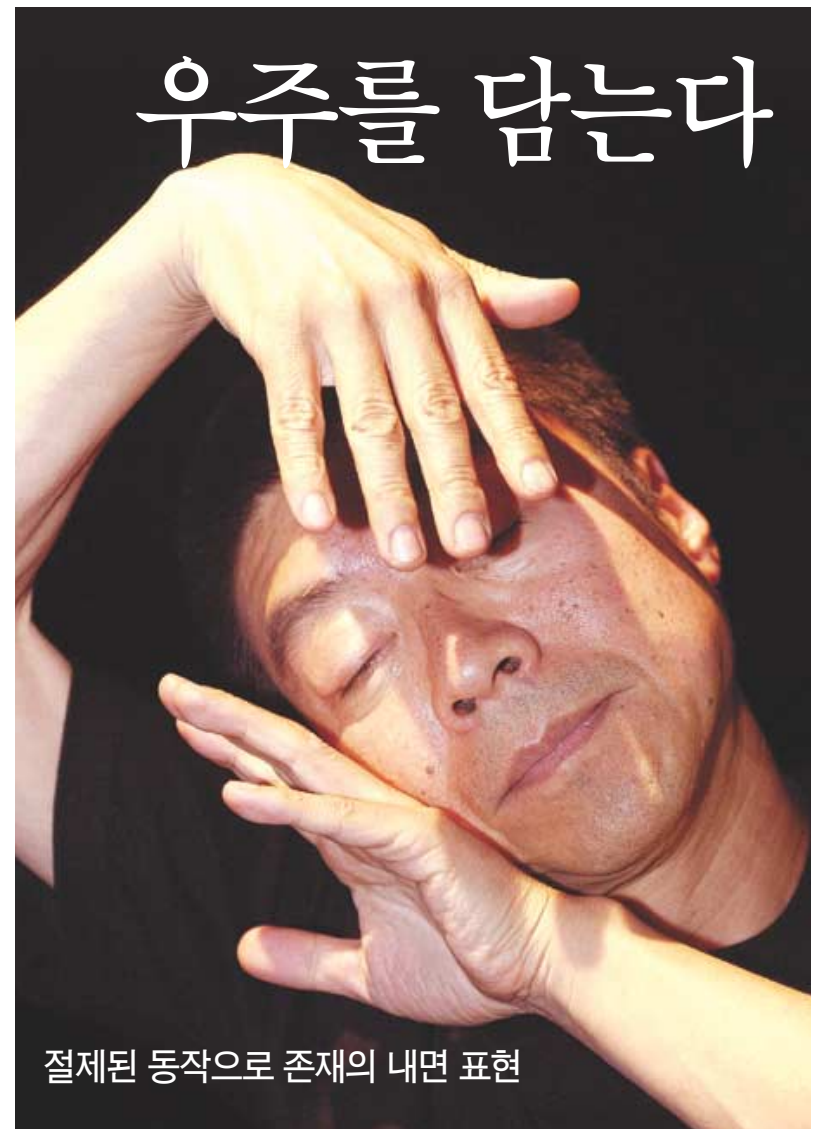
기획자로 있는 친구를 통해 국내 마임계가 완전히 초토화 직전이란 말을 듣고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몸과 마음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자신의 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이 사실은 많은 부분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삼 자신스럽게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결국은 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97년 춘천 마임축제 준비중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수술도 하기 힘든 상태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울러 모든 인간 관계속에서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마음의 문제가 몸의 병을 불러 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리산 실상사로 들어갔다. '산사에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 채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내 병은 '인간'들과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란걸 깨닫게 되었죠. 꼬일대로 꼬인 인간들과의 업연의 실타래를 말이에요. 명상을 통해 그걸 푸는데 꼬박 두 달이 걸렸어요. 어느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천천히 녹아 내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정말 육체의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유씨가 절에서 나와 석달 뒤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종양이 거짓말처럼 없



단순하게

투병 중 명상으로 병 고치고, 몸·마음 둘 다 닦아낸 깨달아



우주를 담는다

절제된 동작으로 존재의 내면 표현

어졌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한 뒤 실상사로 내려와 그가 산사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무대에 올린 것이 바로 대표작 '빈 손'이다. 이 작품은 욕심을 버리면 부릴수록 빠져나감에 텅 비어 있을때만이 새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산사에서의 생활을 통해 유씨의 연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동작 자체가 단순해진 것이다. '그동안 제 마임은 화려함과 동작의 다양성만을 추구해 왔어요. 하지만 그건 정작 사물이나 우주의 실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걸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사람, 사물 등 제 마임 소재들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면 그저 단순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 동작 자체가 훨씬 단순해져야겠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는 요즘도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이면 춘천 육천동 '마임의 집'에서 '빈 손'으로 무대에 선다' 또 시민들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마임강좌'도 열며 마임을 대중

들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일반인들도 마임을 통해 말이나 글에 의해서 놓려 있던 움직임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것이라는 유씨는 지금 새 작품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구상중이다. 절반 가량 완성된 상태인데, 올해 안 할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요즘은 몸이 안 좋으면 벌써 느낌이 팍 와요. 그러면 '아 마음에서부터 이상이 생겼구나'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바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특히 공연전에는 반드시 명상을 합니다. 철저히 내 몸과 마음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묻히고 온 번뇌 찌꺼기들을 명상을 통해 털어내려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쌓이다보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공연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까. 그의 마임에는 소리 없는 몸짓의 아우성을 통해 존재의 내면에 깃든 말을 전하는 선적 언어들이 무수히 박혀 있다. 춘천=김주일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청각 장애인 위한 강좌 열며 작품 '불립문자' 구상중

상표 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사용량 (kwh)	요금(원)	사용량 (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90
100	6,780	310	41,720
110	7,690	320	43,640
120	8,590	330	45,590
130	9,500	340	47,540
140	10,410	350	49,510
150	11,320	360	51,490
160	12,240	370	53,490
170	13,160	380	55,500
180	14,090	390	57,530
190	15,020	400	59,580
200	15,960	410	61,640
210	16,910	420	63,710
220	17,860	430	65,800
230	18,820	440	67,910
240	19,790	450	70,030
250	20,760	460	72,170
		470	74,320
		480	76,490
		490	78,670
		500	80,870
		510	83,080
		520	85,300
		530	87,540
		540	89,790
		550	92,060
		560	94,340
		570	96,640
		580	98,960
		590	101,300
		600	103,660
		610	106,040
		620	108,440
		630	110,860
		640	113,300
		650	115,760
		660	118,240
		670	120,740
		680	123,260
		690	125,800
		700	128,360
		710	130,940
		720	133,540
		730	136,160
		740	138,800
		750	141,460
		760	144,140
		770	146,840
		780	149,560
		790	152,300
		800	155,060
		810	157,840
		820	160,640
		830	163,460
		840	166,300
		850	169,160
		860	172,040
		870	174,940
		880	177,860
		890	180,800
		900	183,760
		910	186,740
		920	189,740
		930	192,760
		940	195,800
		950	198,860
		960	201,940
		970	205,040
		980	208,160
		990	211,300
		1000	214,460
		1010	217,640
		1020	220,840
		1030	224,060
		1040	227,300
		1050	230,560
		1060	233,840
		1070	237,140
		1080	240,460
		1090	243,800
		1100	247,160
		1110	250,540
		1120	253,940
		1130	257,360
		1140	260,800
		1150	264,260
		1160	267,740
		1170	271,240
		1180	274,760
		1190	278,300
		1200	281,860
		1210	285,440
		1220	289,040
		1230	292,660
		1240	296,300
		1250	300,960

전화 031-791-8871 792-8867~8